

고린도전서7:17-24 부르심 받은 대로

운동경기를 할때는 그것이 무슨 경기이든지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손을 쓴다든지, 농구경기엔 발을 쓴다면 반칙입니다. 또 반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번 거듭되면 그 선수는 퇴장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원리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에 대해 권고를 하면서 부부 생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권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부르신대로 행하라(17, 20)

17.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17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부르심입니다.

이 말은 몇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위해 부르신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부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맞나할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이며 이 은혜는 구원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부르신 당시의 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때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부름이지만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부르셨고 또 어떤 이들은 공산권의 지하교회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환경이 바로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 살이할때 부르신것이 아니라 6.25 전쟁중에 우리들을 부르신것이 아닙니다.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해 배를 움켜쥐고 나무껍질을 벗기는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힘겨운 삶이 있지만 그 부름심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부름에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그냥 내 운명이겠거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러한 환경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소명의식을 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에서도 벨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반대로 그럼 저들은 저주 받아서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일까요?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말을 오해하면 자족이라는 말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운명으로 받아드림으로 ‘내 삶이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라는 포기의 의미가 더 부각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더 묵상해 보면 이것은 비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누구의 삶과 비교되어서도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결과물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내 삶과 내 환경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